

35장 낙원

1. 황폐케 된 사막에 꽃이 피 (35:1-4)

34장에서는 에돔을 황무한 광야로 만드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35장에서는 광야에 꽃이 필 것을 이야기한다. 광야에 백합화가 피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일반적인 광야, 혹은 황무지가 된 에돔의 광야가 아니라 지명이 언급된 이 세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샤론이 사막과 같이 되었는데(33:9), 이제 그 광야에 다시 백합화가 피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그 광야가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핵심인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뵈는 것’에 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에 점령당하였던 그곳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굳세게 서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할 수 있다. 여호와의 ‘보복’과 갚아 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서서 나아가도록 격려를 받는다(35:3-4).

2. 소경과 귀머거리와 저는 자와 병어리가 고침을 받음 (35:5-7)

예언자는 그때에 소경과 귀머거리, 저는 자와 병어리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 약속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서 못이 되고 풀과 갈대가 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몸이 회복되는 일과 광야가 변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계는 이사야서 6장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될 것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사 6:10-11). 그런데 여기에서는 귀머거리와 소경이 된 이스라엘이 장차 고침을 받고(참조. 42:7) 황폐하게 되었던 그 땅도 회복될 것을 이야기한다.

3. 구원받은 자는 대로(大路)를 통하여 시온에 이를 것 (35:8-10)

이스라엘이 고침을 받는 일과 더불어 광야가 못으로 바뀔 것이라 하였는데, 그 광야는 황폐하여진 이스라엘 땅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 광야에 장차 시온에 오르는 큰 길, 곧 ‘거룩한 길’이라고 불리는 길이 열릴 것이다. 부정한 자나 우매한 자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할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와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그 길을 걸어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도중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안전하게 시온에 이르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27:12-13).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장차 여호와와의 속량함을 입고서 돌아올 것을 이러한 종말론적 언어로 표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구속의 일을 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었던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구속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소경과 귀머거리와 앓은뱅이를 고쳐 주신 것은 이러한 약속의 성취로서 의미를 지니며(마 11:5),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 저는 자와 병어리 된 자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나타내신 일이다.

35장 익힘 문제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 입니까? (2절)
2.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그 가운데 대로가

있을 것인데 그 길의 이름은 무엇이라 불릴 것입니까? (5-8절)

2) 그 길은 어떤 자만이 걸을 수 있습니까? (8절)

3) 그 길은 어디에 이르는 길입니까? (10절)

3.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쳐 주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는데(마 11:5) 그것과 관련 있는 표현을 35장에서 찾아서 써 보십시오.